

강진서 농공단지 기업 모여 도약 다짐

도약의 날 행사 열고 발전 모색 기술 인증·시제품 제작·마케팅 전남도 전국 유일 특화 지원 사업

전남도가 지난 27일 강진에서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도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서순철 강진부군수, 서규정 전남농공단지협의회회장, 한기홍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과 유관기관장,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농공단지 활성화에 애써온 우수 기업인과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상호 정보공유와 경영 역량 강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발전 방안 등을 토론했다. 도내 농공단지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농공단지 대부분이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단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유일 농공단지 특화 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했다. 입주기업의 기술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 등을 매년 지원 중이며, 올해는 17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매년 10억원을 지원, 입주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노

력하고 있다.

또 농림부 신규 사업인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공모사업에 나주 동수·오랑 농공단지가 선정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산단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활기찬 단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농공단지가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핵심 거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활기찬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광주·경북·경남 관광기업 60곳 참여 목포 평화광장에서 '모두의 로컬 나들이 마켓'

청년·주민 만든 제품 판매

남해안벨트의 관광 중심축인 전남·광주·경북·경남의 관광기업 60여곳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민에게 로컬관광을 알리는 '모두의 로컬 나들이 마켓'이 지난 28일 목포평화광장에서 열렸다. <사진>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목포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로컬관광의 주역인 청년과 주민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서로 만나 상생하는 화합의 의미를 K-마켓 형태로 담아 지역민에게 첫선을 보여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역의 가치를 잇고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를 담기 위해 전남, 광주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의 관광사업체도 특별 셀러로 참가해 타 지역의 이색적

인 관광제품도 함께 볼 수 있었다는게 포인트다.

이번 행사는 4개 광역자치단체 청년 관광창업자와 지역 주민이 만든 소소하고 힙한 관광기념품과 미식상품, 체험키트 등 100여종의 상품을 판매해 '오감만족 관광 플라마켓' 행사였다는 평이다. 화업사가 출시한 화염사 비건 빵과 우리살집, '남도맛김' 등이 인기를 끌었다. 진도북춤이 개막을 알렸고 소프라노 문안나와 피아노 현악 4중주, 팝핀 현존의 피날레 무대 등도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지역 식재료로 만든 감태페스토, 순천만국가정원 시그니처 다육이, 고흥 유자캔들, 로컬 맥주와 건어물 안주세트, 경상남도의 바다를 담은 와인, 발효 음료, 관광해어밴드 등 다양한 로컬관광 상품이 판매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전국장애인체전 막바지 안전 점검 총력

점자안내판·경사로 등 현장점검

전남도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시에 8000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24명과 함께 경기장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사진> 주요 점검사항은 ▲시각장애인이 건물 내부를 알 수 있는 점자 안내판 및 음성 안내기 설치 ▲화장실 변기 자동 물 내림 센서 및 비상호출벨 설치·작동 ▲휠체어 이동 동선 바닥 단차 확인 및 핸드레일·슬로프 안전 설치 ▲간이 경사로 안전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이다. 또 ▲인파 관리, 질서유지, 긴급차량 동선 확보 ▲장애인을 고려한 주무대 시설물 구조 안전성 여건 ▲누전차단기, 규격전선, 전선 노출 여부 ▲가스배관 고정부 누출 여부 ▲화기관리, 적절한 화재진압장비 배치 ▲승강기 안전 ▲비상 통화장치, 도어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하고, 즉각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개막 전까지 장애인의 불편



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장애인은 체전은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참가 선수가 불편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전국체전과 같이 장애인체전 기간인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소방본부와 합동 '안전중합상황실'을 운영해 만일의 사고에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시니어합창경연대회

광양 은빛사랑합창단 최우수상

지난 2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7회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에서 '고향의 봄'을 부른 광양 은빛사랑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니어 합창단 26개 팀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평균 연령 70대 어르신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 넘치는 환상적 하모니를 선보이며 청중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다. 우수상은 완도 빙그레합창단 등 3팀, 장려상은 곡성 기차마을실버합창단 등 3팀이 수상했으며, 상장과 부상으로 트로피가 수여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동절기 대비 시설물 4105곳 안전점검

전남도가 동절기 대비 시설물 4105개소(공공 2272·민간 1833)에 대한 안전점검을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시설물, 시설물에 발생하는 결빙으로 인한 주요 구조물 균열과 상수도 동파 등 위험요소와 위험 저감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사용 중인 전기·가스·소방 위험요소 확인 등 화재예방 관리 실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대형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및 축대, 옹벽 등 균열 등에 따른 붕괴 위험 ▲겨울철 상수도 동파 대비를 위한 위험저감대책 시행 여부 ▲ 2023년

집중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다. 또한 재난 취약시설물은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 문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제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즉각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주요 지적사항을 지속해서 지도 관리·감독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통령 소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전남 간담회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공론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전남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한 위원들과 전남도 관계 공무원, 도내 농업인 등 25명이 참석해 농업 관련 정책 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1990년대에 제정된 농업·농업인 정의가 현재의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발전하는 농업과 농업인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민기 전환캠프생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산업을 외연 확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농업·농업인 개념을 재정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 정의의 적정성, 현행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 농업인 기준의 개선 방안, 정책 대상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도내 농업회사 대표인 한 참석자는 "현재 농업에 대한 정의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농업과 농업인의 개념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보험료 90% 지원...양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접수

전남도가 오는 11월 24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양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양파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폭설, 냉해, 폭염, 집중호우, 침수,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160농가가 1812ha를 가입해 전체 자부담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4억2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보험 가입 농가가

받은 보험금은 이보다 19배나 많은 81억원이었다.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자부담 24만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냉해 피해를 입어 43배 많은 1048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